

의인의 요절과 악인의 장수(지혜 4,7~11)

의인은 때 이르게 죽더라도 안식을 얻는다. 영예로운 나이는 장수로 결정되지 않는다. 살아온 햇수로 셈해지지 않는다.

사람에게는 예지가 곧 백발이고 티 없는 삶이 곧 원숙한 노년이다.

하느님 마음에 들어 그분께 사랑받던 그는 죄인들과 살다가 자리가 옮겨졌다.

악이 그의 이성을 변질시키거나 거짓이 그의 영혼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들어 올려진 것이다.